소년단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

나는 조선 소년단원으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원수에게

인민을 위하여

준비할것을

맹세 합니다 …

항상 준비

소년단

1955.4

나의 붉은 넥타이

박 세 영

내가 맨 붉은 넥타이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나자로바 라는 이름이
똑똑히 씌여 있는 이 넥타이는

아저씨가 모쓰크바에 가셨을 때
영웅 조선의 소년단원에게
저희 뜻 전해 달라
이 넥타이를 매 준거라구

우뢰 같은 박수 소리에
서로들 껴안고 매여 달리며,

조선을 생각는 뜨거운 그 마음
처럼
쏘련 삐오네르의 붉은 넥타이.

나의 동생도 소년단원이지만,
나는 최우등을 했다고
아저씨는 나자로바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매 준거다.

나자로바가 어떻게 생겼는진 몰
라도
어여쁜 푸른 눈동자와 함께
나는 어깨 동무를 하듯
날마다 학교에 오가는 것 같다.

월계꽃 보다도 더 붉은
소중한 나의 붉은 넥타이.
나는 공부를 잘 해
승리의 기'발처럼 날리련다.

레닌 선생에 대한 이야기

☆겸손하고 소박하신 분

레닌 선생은 참으로 겸손하고 소박하신 분이였습니다.

레닌 선생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혁명의 리익을 더 높이 내세웠습니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레닌 선생이 살고 계신 집은 변변치 않은 소박하고 간소한 집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레닌 선생을 만나 보신 한 농민은 《나는 레닌 선생이 짜리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줄만 알았지. 그와 같이 소박하고 조그마한 방에 살고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는 참 놀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920년 12월 어느 한 일요일, 레닌 선생은 모쓰크바로부터 퍽 떨어져 있는 교외에 휴식하려

사무실에 계시는 레닌 선생
(크레물리. 1918)

갔다 돌아오던 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하는 수 없이 기차를 리용하게 되였습니다.

역장은 모쓰크바에다 특별 렬차를 보내 달라고 련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레닌 선생은 《나 한사람 때문에 특별 렬차를 낼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그것은 쓸 데 없는 일입니다. 나는 화물차를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동무들, 걱정하지 마시요》 하고 거절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레닌 선생은 보통 려객과 함께 추운 대합실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화차를 타고 돌아가시였습니다.

한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닌 선생이 군데 군데 터진 낡은 외투를 입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인민 위원부 위원장 동지! 어서 곧 벗으십시요. 그러지 으면 추위에 몸에 탈이 생길 입니다》라고 하였을 때 레닌 생은 그의 손목을 잡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자재를 나라의 각종 건 사업에 리용하여 우리들의 생 을 더 많이 내고 우리들의 군 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하고 숙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으시면서

《모든 것은 쏘베트 인민들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한 개인 받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 하시였습니다.

☆ 엄격한 규률

위대한 레닌 선생은 언제 규률을 솔선하여 엄격히 지 습니다. 레닌 선생은 항상 의 규률과 쏘베트 국가가 만 어 놓은 법률과 사회의 질서를 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번은 레닌 선생이 리발하 리발관에 들어 섰을때 선참으 와서 순번을 기다리던 사람들 곧 레닌 선생인 줄 알아 차리 《그이는 매 일분이 귀중할테 하고 모두 앞을 다투어 레닌 생에게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념 마시요. 이제 한 자리가 났으 차례를 기다리시지 말고 곧 저 리발하십시요》라고 권하였 니다.

그러나 레닌 선생은 대답하기 《고맙습니다. 동무들, 그렇

하여서는 안됩니다. 응당 순서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만든 법률 질서는 응당 우리들 자신이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옆에 직접 의자를 날라다 놓고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여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번은 보초병이 그를 몰라 보고 통행증을 보자고 청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본 한 동무가

《이 이는 레닌 동지가 아닌가, 그래도 검사를 하여야 하는가》라고 나무려 말할 때, 레닌 선생은 《그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보초병의 행동은 완전히 옳은 것입니다.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하고 통행증을 직접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때 보초병은 황송하여

《량해하십시요. 통행증을 보았습니다. 레닌 동지》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레닌 선생은 다시

《당신의 행동은 완전히 옳습니다. 당신이 참 잘 복무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초병 동무》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레닌 선생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알았으며 시간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모범을 보이였습니다. 레닌 선생에게는 단 한 시라도 쓸 데 없이

자기 조카와 로동자의 딸을
데리고 계신 레닌 선생 (1922. 8)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레닌 선생의 사무장이였던 고르브노브는 다음과 같이 레닌선생에 대한 회상을 말하였습니다.

《레닌은 자기의 시간을 아낄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도 아낄 줄 알았습니다. 레닌이 지도하는 회의는 많이 왔던 적게 왔던 정각이 되면 반드시 개회되였습니다.

인민 위원부와 련방 국방 쏘베트 회의에 지각하여 오는 위원들의 이름을 레닌은 회의록에 올리라고 분부하고 누가 몇분 늦게 왔다는 것까지 밝히여 적어 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리유 없이 다시 한번 지각하면 레닌은 지각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공보로 발표하겠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만경대 리 종록 촬영

"아버지의 유언을 받으시는 김 일 성 원수" 서 정환 그림

"아동 혁명단" 에서

장군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왜놈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왜놈 때문에 너무도 빨리 세상을 떠났다.

장군이 열 세살 때였다. 아버지는 그해에 만주 소학교를 마친 아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냈다.

그래서 장군은 외가'집 마을인 평양 교외 칠고리에서 소학교 사학년에 입학하여 열네살 봄에 졸업하였다.

마침 그때에 장군은 아버지가 병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독립 운동을 계속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 안 해 초겨울에 련락 관계로 후창군 포평에 넘어왔다가 끄나풀의 밀고로 왜경에게 체포되였다.

그러나 이내 도중에서 도망할 수 있었는데 도망하여 며칠 동안 산간에 숨었다가 압록강 얼음을 타고 만주로 넘어가는 사이에 동상에 걸렸다.

그래 무송이라는 곳에 피신해 들어가서 정양하고 있었으나 병세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

그러나 장군이 아버지를 찾아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무송 우급 학교에 보냈고 졸업한 뒤에는 길림 육문 중학으로 보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누워서도 동지들과 련락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잡병을 싸우던 끝에 아버지는 설흔 여섯이라는 젊은 나이로 높은 뜻을 이루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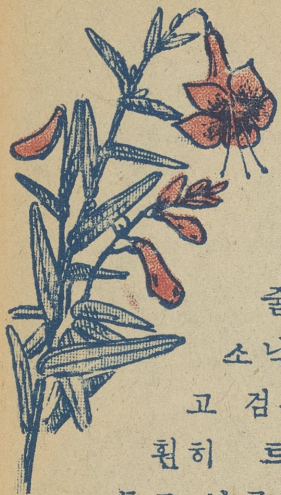
장군은 아버지의 죽음에서 모든 조선 사람에게 지워진 운명을 보았다. 그것은 오로지 왜놈 때문이였다.

장군은 슬픔 속에서 분노를 느꼈다.

《이놈들을 때려 없애야 한다. 누가 할가? 나부터 해야 한다》.

장군은 이때 벌써 자기가 갈 길을 내다 보고 있었다.

나리꽃

평양 제1 녀자 중학교 (인민반)
제5 학년 김 경 자

줄기차게 퍼붓던 소낙비도 인차 멎고 검은 하늘이 차차 훤히 트더니 해'님이 둥근 얼굴을 갸웃이 내밀었다.

얼마 동안 수풀 속에 들어가 소낙비를 피한 노란 나비 한쌍이 공중으로 날아 오르며 춤을 추다가 인숙이네 집 꽃밭에 날아 들었다.

아담하게 가꾸어 놓은 꽃밭에는 봉선화, 백일홍, 분꽃, 맨드래미꽃, 그리고 인숙이가 제일 좋아하는 나리꽃이 불쑥 자라고 있었다.

이 나리꽃은 인숙이가 지난 봄에 만경대에 견학을 갔을 때 김 일성 원수님의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꽃이였다.

원수님의 할아버지께서는 나리꽃을 인숙에게 주면서 원수님은 어렸을 때 꽃을 몹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바로 이 나리꽃도 그때 가꾸던 뿌리에서 자라난거지—》하고 원수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 주시였다.

나리꽃을 받아 든 인숙이는 기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 왔었다.

이때부터 인숙이는 다른 꽃들보다 나리꽃을 더 사랑했고 정성 들여서 가꾸기 시작했다.

* * *

창'가에 기대여 서서 해'별에 비'방울을 반짝이는 꽃밭을 바라보던 장난'군인 인남이는 어느새 나비를 보고 막 밖으로 뛰여 나갔다.

쌍을 지어 날다간 꽃에 찾아 앉는 노란 나비를 잡으려고 인남이는 작은 손을 내저으며 꽃밭에 들어 서다 말고 놀래며 《야! 누나야 이것 봐!》하고 웨쳤다.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인숙이도 놀라며 창'가에 가 보았다.

《누나! 나리꽃이 피여나—》.

《뭘?》인숙이는 너무도 기뻐 단숨에 꽃밭으로 뛰여 나갔다.

《아이 며칠 아니면 활짝 피겠네!》.

인남이가 손질하는 나리꽃을 쳐다 보며 막 좋아하였다.

인숙이는 인남이 손목을 꼭 잡으며

《인남아! 이 꽃이 활짝 피면 만경대에 찾아가서 원수님의 할아버지께 보여 드리자》라고 약속하였다.

인남이도 막 손벽을 치면서 기뻐서 날뛰였다.

일어서는 민주 수도-평양

민주 수도 평양시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 갑니다.

5•1절과 8•15 해방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평양시는 더욱 힘차게 복구 건설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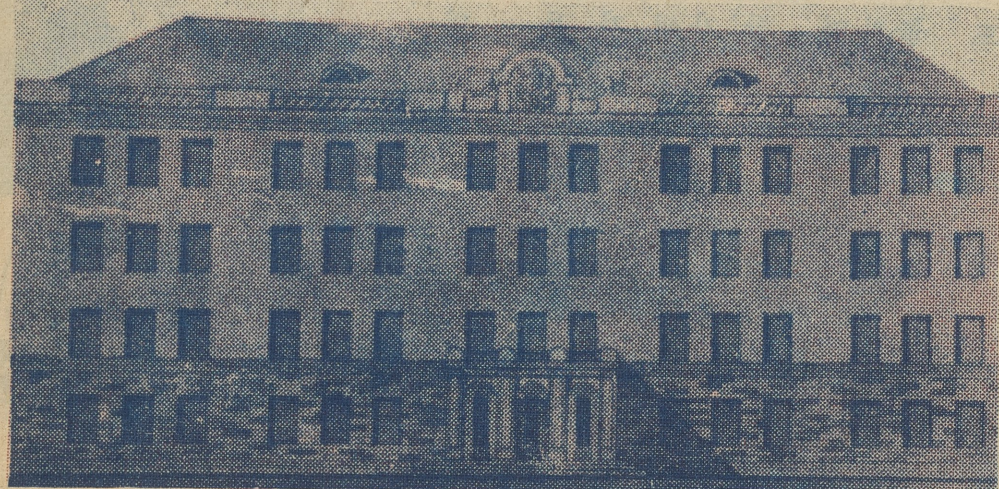
8•15 해방 10주년을 맞을 때에는 민주 수도 평양은 더욱 아름답게 건설될 것입니다.

★ 더 아름다워지는 거리들

쓰딸린 거리, 인민군 거리, 김 일성 광장들은 아스팔트 공사가 끝나며 보통문 거리도 새로 단장하게 됩니다.

보통문—신창동 간 거리, 모택동 거리, 동평양 간선 도로들은 더욱 넓어집니다.

★ 새로 서는 주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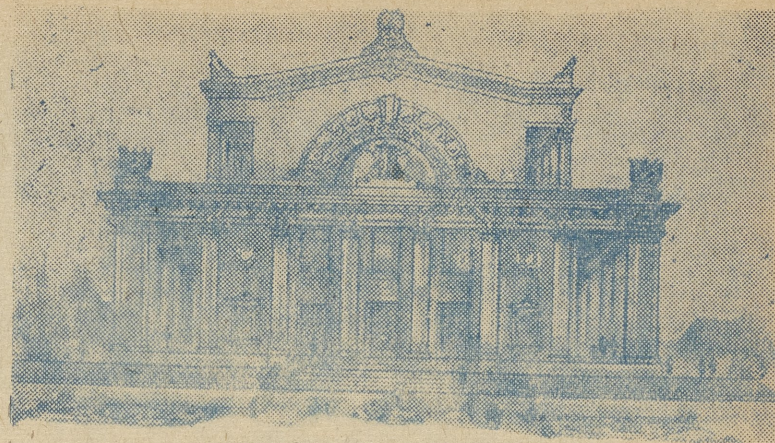
보통문 거리, 칠성문 거리, 서평양 역전 거리, 동평양 간선 도로 량쪽에는 2—3층의 훌륭한 주택들이 (4,100세대) 건설됩니다. 그중 1,500세대는 8•15까지 끝나며 나머지 주택들은 금년 말까지 다 건설됩니다.

☆평양 제13 인민 학교의 모형도☆

★새로 건설되는 아동 공원들

평양 역전에서 좀 들어오면 제1 아동 공원이 만들어지며 모란봉 기슭에는 제2 아동 공원이 만들어 집니다.

아동 공원에는 소년단문이 세워질 것이며 공원 앞에는 아동 야외 극장, 롱구장, 배구장, 그리고 그네, 미끄름대 등 아동 유희 시설들이 갖추어집니다. 또한 아동 도서실, 음악당들도 세워집니다. 아동 공원의 록지들은 네군도 단풍, 잣나무, 향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과 꽃들도 우거져 훌륭한 교재원이 될 것입니다.

★ 8•15까지 완공되는 고층 건물들

김 일성 광장의 량쪽에 우뚝 솟아 오른 종합 청사 제1호 제2호는 8•15까지 아름답게 완전히 건설됩니다.

☆중앙 영화관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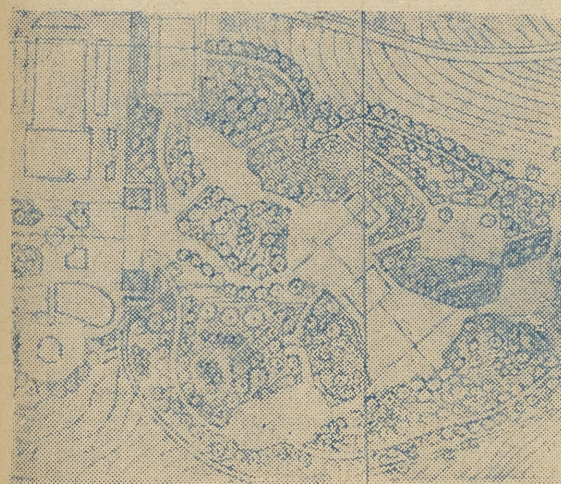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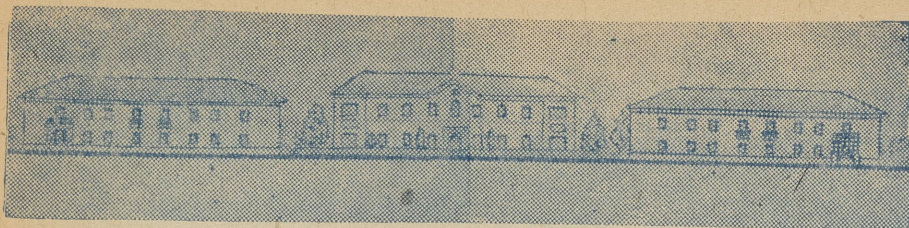
국제 호텔— 쓰딸린 거리에 5층으로 건설되는 이 집은 외국 손님들에게 알맞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집니다.

목욕탕—남평양에 건설되는 이 목욕탕은 지하실을 가진 2층집으로 건설됩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대합실, 옷벗는방, 위생실, 간이 식당, 미장원, 리발실들이 갖추어지며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실, 122석의 증기 욕실이 갖추어집니다

이밖에도 특별 병원, 과학원 연구소, 최고 인민 회의 청사, 평남도 종합 청사, 평양 려관, 제1 인민 병원들이 아름답게 건설됩니다.

★ 새로 서는 학교들

제20, 21, 31, 36, 40, 인민 학교, 중국 인민 학교와 그의 기숙사, 제 6, 7, 8, 18 중 학교, 계획 경제 및 재정 경제 전문 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8•15까지 완전히 건설됩니다.

김책 공업 대학 제2 교사(5층)

☆제2 아동 공원 설계도☆

☆ 동 평양 지대에 건설될 다층 주택 모형도 ☆

평양 의학 대학(5층), 산업 간부 양성소, 유자녀 학원 기숙사 등은 8•15까지 2—5층의 벽돌 쌓기를 끝마칩니다.

유자녀 학원 기숙사는 록지를 끼고 장안통의 대동문 맞은 쪽에 건설됩니다.

5층으로 지어지는 이 기숙사는 한방에 4—5명씩 들어갈 수 있는 192개의 침실과 매층마다 도서실, 휴계실, 차를 끓이는 방 등을 갖추게 됩니다.

★ 금년 내로 설 고층 건물들

평양 역사— 민주 수도의 역으로서 훌륭히 건설되는 이 건물은 려관, 병원을 비롯하여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편리한 여러가지 시설이 갖추어집니다.

중앙 영화관— 1,000여석의 관람석을 가지게 되는 이 영화관은 화려한 유보도와 조용한 도서실도 갖추게 되며 영화관 주위에는 꽃밭들이 훌륭한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과학 도서관— 200만권의 도서를 비치할 서고와 3백여석의 열람실, 연구실을 갖추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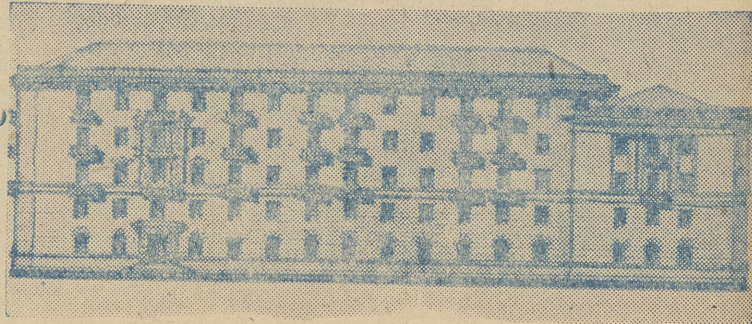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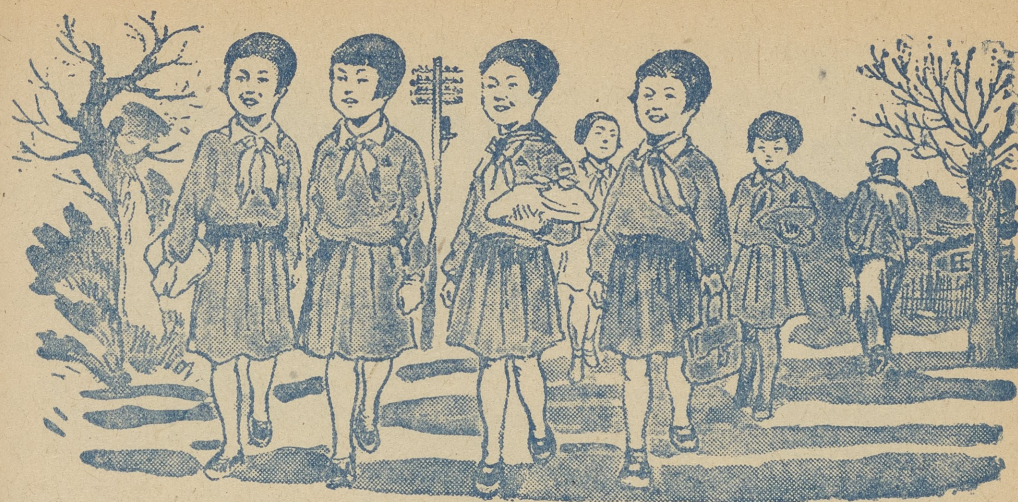
중앙 전화국— 2만 개의 전화를 교환할 수 있는 큰 전화국으로 건설됩니다 이밖에도 최고 검찰소 청사, 종합 청사 3호 등 많은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 훌륭하게 건설되는 공장들

평양 방직 공장— 60,000추의 방적기를 설치하는 공장으로 건설됩니다. 이밖에 2천톤의 육류를 식료품으로 만들어내는 평양 육류 콤비나트를 비롯하여 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제사 공장 등도 8•15까지 기본 건설을 끝마치게 됩니다.

평양 기계 펌프 공장, 도량 형기 공장들은 8•15까지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5•1절 까지에는 해방탑도 복구되여 더욱 평양시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인민들로부터 영웅의 거리라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민주 수도 평양은 8•15 해방 10주년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유자녀 학원 기숙사 모형도☆

다정스러운 반 동무들

…황해 북도 서흥 인민 학교 대 제2 분단 4반에서…

박 정 렬

따뜻한 봄날입니다.

반장 순자 동무는 새로 세운 훌륭한 학교 앞에 아름답게 피여날 꽃밭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린 순자 동무는 어머니를 도와 방안과 뜰 안을 말끔히 쓸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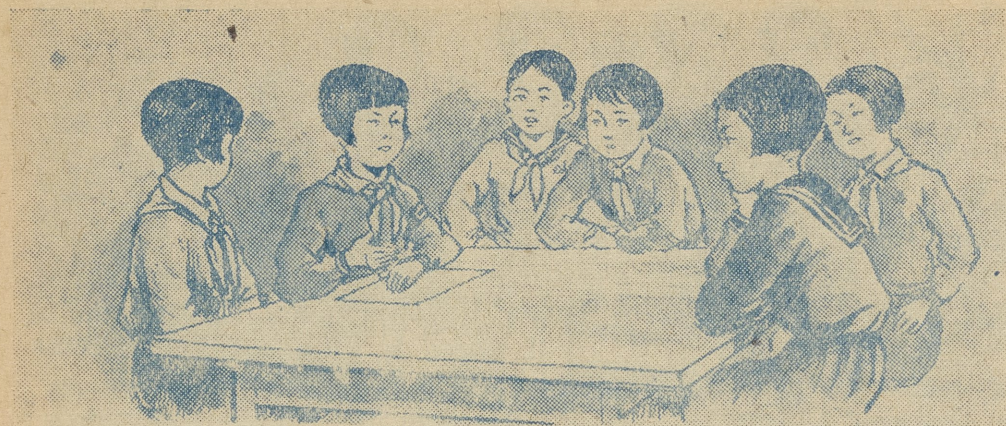
그리고 오늘 배운 복습을 끝마친 순자 동무는 반 동무들과 약속한 반 모임 시간이 되여 옥자 동무네 집으로 갔습니다.

반 동무들이 모여 오자 순자 동무는《우리 반 꽃밭을 어떻게 가꿀가?》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동무는 다정스러이 동무들을 바라보며《아까 분단 위원장 동무가 말하지 않았어. 이번 봄맞이 준비는 누가 학교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내기라고…》하면서 꽃밭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가고 물었습니다.

여러 동무들은 좋은 의견들을 말했습니다.

순자 동무는《그럼 우리 반이 꼭 모범을 보여야 해》하고 동무들을 쳐다 보았습니다.

이때에 영숙 동무가《조선지도 모형으로 꽃밭을 만들면 어떻니?》하고 새로운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던 경희 동무가 《그건 참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집에는 고운 꽃씨들이 많아. 꽃씨는 내가 가져 올께……》.

하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무들은 경희 동무가 이야기하자, 막 기뻐했지요.

늘 반 모임에서 아무런 의견도 말하지 않던 경희 동무였기 때문입니다.

* * *

지난 학기만 해도 경희 동무는 반 모임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며 반장 순자 동무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경희 동무는 언제나 공부를 잘 하고 아무 일에나 모범을 뵈여 칭찬을 받는 순자 동무를 은근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무들과 숙제를 하다가도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곤장 맞는다고 고집하기를 잘 했고 반 동무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반장 순자 동무는 반 동무들이 다정해지고 반 생활을 재미있게 하려면 경희 동무의 나쁜 점을 깨우쳐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자 동무는 경희 동무네 집으로 자주 가서 복습도 함께 하며 재미 있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들은 다정해졌고 나쁜 점은 제때에 타일러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학과를 마친 순자네 반 동무들은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큰 짐을 이고 무거워 하시며 걸어 오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동무는 할머니를 보자

《아야. 늙은 할머니가…》하고 막 달려가서 할머니의 짐을 이여다 드렸습니다.

경희 동무는 바라보다 말고 《저 앤…》하고 반장 순자 동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영숙 동무와 다른 동무들은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못한데 대하여 뉘우치며 순자 동무의 착한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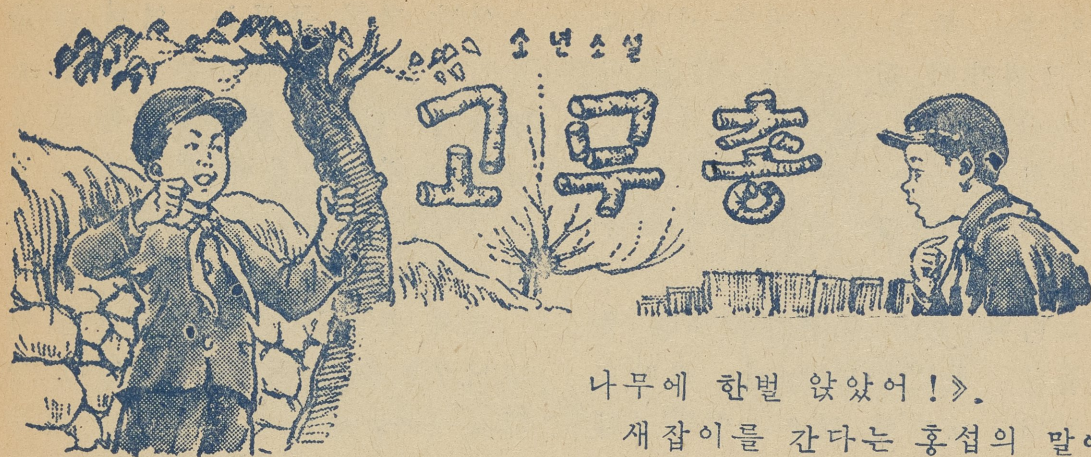
이날 경희 동무는 여러 동무들이 《참 순자 동무는 모범 소년단원이야!》하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경희 동무는 《넌 왜 숙제를 안 했니?》 순자 동무가 타일러 줄 때도 《애, 공부 잘 한다고 너무 뽐내지 말어》하면서 나무려 주던 일이 생각되였습니다.

《난 옳지 않았어》하고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경희 동무는 지난날 순자 동무의 다정한 충고들이 고마워졌습니다.

《순자는 언제나 우리 반을 위해서 애쓰는 동무라는 걸 나는 생각지 못하고 비웃기만 했어》하고 경희 동무는 순자 동무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동무들을 사랑하겠다고 속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순자 동무와 경희 동무는 퍽 다정스러워졌고 반 동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리하여 순자네 반 동무들은 순자 동무의 모범을 따라 열심히 배우면서 반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1)

영길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곧 책상에 마주 앉아 선생님이 숙제로 내신 산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홍섭이가 급히 달려 오며

《영길아! 좀 나와 빨리!》

하고 영길이를 찾았습니다.

영길이는 산수 문제를 풀다 말고 홍섭이가 급히 부르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숙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홍섭이와 같이 놀러 가면 또 진종일 시간 보낼거야!)

이렇게 생각한 영길이는 신을 신으려다가

《홍섭아! 난 못 가겠어, 숙제 다 못했어》하고 말했습니다.

《숙제야 오늘 중으로 하면 돼, 빨리 나와! 저기 새들이 살구나무에 한벌 앉았어!》.

새잡이를 간다는 홍섭의 말에 영길이도 귀가 벌쭉해졌지요.

《그래 어데 말이냐?》.

《살구나무'집에 말이야. 새들이 어찌나 앉았는지 살구나무 가지가 막 보이지 않는구나》.

영길이는 휙 들창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로 잡겠니》.

《넌 피가 없어 학교 마당에 레군도 단풍 나무가 있지 않아, 작년 봄에 심은 것 말이야. 그거루 고무총 한개씩 만들면 돼》.

영길이는 홍섭이가 너무나 뜻밖의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슴이 털렁했습니다.

《아니야, 나무를 꺾으면 안돼,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어》.

《칫, 영길아 나무를 몽땅 꺾어 버리는 것두 아니고 두가지만 꺾는데야 뭐》.

홍섭이의 말은 모두가 그럴듯 하였습니다.

영길이는 홍섭이의 뒤를 따라 《휘 휘》 휘파람을 불며 레군도 단풍 나무 가지를 꺾으러 학교 마당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하여 곧 고무총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됐어, 빨리 가》.

그들은 다시 살구나무'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참새들은 날아 갔다가 또 날아 왔습니다.

홍섭이와 영길이는 호주머니에서 새알만큼 한 잔 돌을 꺼내여 고무총에 메우고 한 눈을 질끈 감고 새들을 겨누어 쐈습니다.

그바람에 새들은 다 후루룩 날아 가버렸는데 어디선가 《쨍그당》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틀림 없이 살구나무'집 창문 유리가 깨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살구나무'집에서는 모두 들에 일하러 나갔는지 조용하였습니다.

《큰 일 났어. 빨리 가야겠다》.

홍섭이와 영길이는 누가 뒤에서 쫓아 오지나 않을가 마음을 두근거리며 달음박질 쳤습니다.

(2)

이튿날 아침 홍섭이와 영길이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 났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를 해 왔는가고 채근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숙제를 해 왔으나 영길이와 홍섭이만은 채 못한채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별로 더 채

근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선생님이 어제 내가 한 일을 죄다 보지지나 않았을가?》.

영길이도 그리고 홍섭이도 이런 생각에 싸인채 수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거면 좋아》.

영길이는 홍섭이 보고 걱정하였습니다.

홍섭이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아무 대'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분단 위원장이 오더니 오늘 방과 후에 분단 열성자 모임을 가질테니 참가하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분단 위원장의 이 말은 그들의 가슴을 더욱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홍섭이와 영길이는 분단 열성자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틀림 없이 우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을거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숙이고 한쪽 옆에 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고 작년 봄과 그리고 올봄에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가꾸어 줄 데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영길아, 무슨 좋은 생각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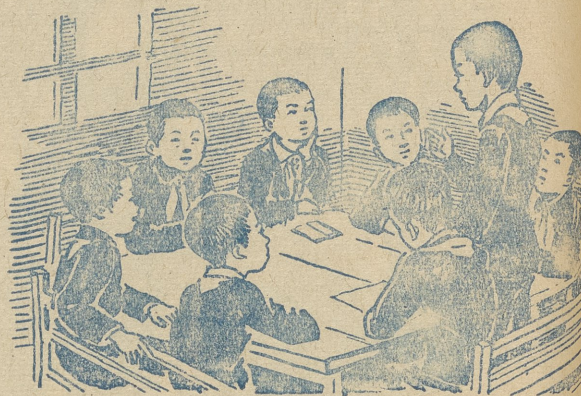
분단 위원장이 묻는 것이였습니다.

영길이는 더는 동무들과 그리고 선생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영길이는 어저께 한 자기의 잘못을 모주리 동무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영길이의 이야기를 듣는 홍섭이의 가슴은 더욱 울렁거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영길이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영길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걸 내가 꾀여 불러 내였고 고무총도

내가 생각해 냈습니다》

홍섭이도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동무들은 두 동무의 뜻밖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어》.

모든 동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3)

학교 마당에서 뜀질하며 놀던 아이들도 인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창문'가에 서서 운동장 주위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서 두 소년이 바께쯔에 물을 담아 들고 례군도단풍나무들을 심어 놓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길이와 홍섭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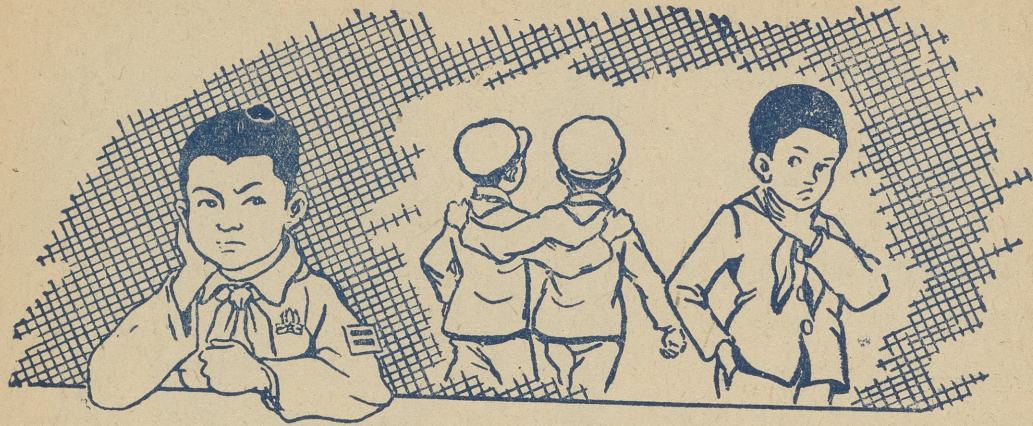
《참 깊이 깨달았구나》.

선생님은 웃음을 띄우시며 혼자'말을 하시였습니다.

네군도단풍나무들에 물을 다 주고 난 그들은 다시 살구나무'집을 향하여 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저 애들은 참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될거야》.

선생님은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 보며 한 없이 기뻐하시였습니다.

(김 종호. 일 림)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

얼마 전에 편집부는 길주 쌍룡 인민 학교 대 제4 분단 위원장 김 철규 동무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반장 일선이를 비롯한 세 동무의 행동과 그의 잘못을 고쳐 주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물어 왔습니다.

여기에 그 편지를 소개합니다.

*　　*　　*

나는 우리 분단 제3 반 동무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렵니다.

우리 분단 제3 반 반장 박 일선 동무는 자기와 친한 동무인 박 수천 동무와 늘 함께 공부도 하며 놀기도 합니다.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수천이가 혼자서 산수 숙제를 풀다 못해 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일선이는 숙제를 끝내고 놀러 가는 참이였습니다.

일선이는 수천이가 숙제를 하지 못해 애를 쓰는 줄 알면서도 그를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 온 수천이는 숙제를 풀어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선이는 자기의 숙제장을 그저 수천이에게 열른 베끼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수천이는 일선이게서 베낀 자기의 숙제장을 선생님에게 바쳤습니다.

자기의 로력을 들이지 않고도 숙제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된 수천이는 일선이를 고마운 동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후 일선이와 수천이의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운이가 눈치채였습니다. 그러나 용운이는 그들의 잘못을 본체만체하며 그것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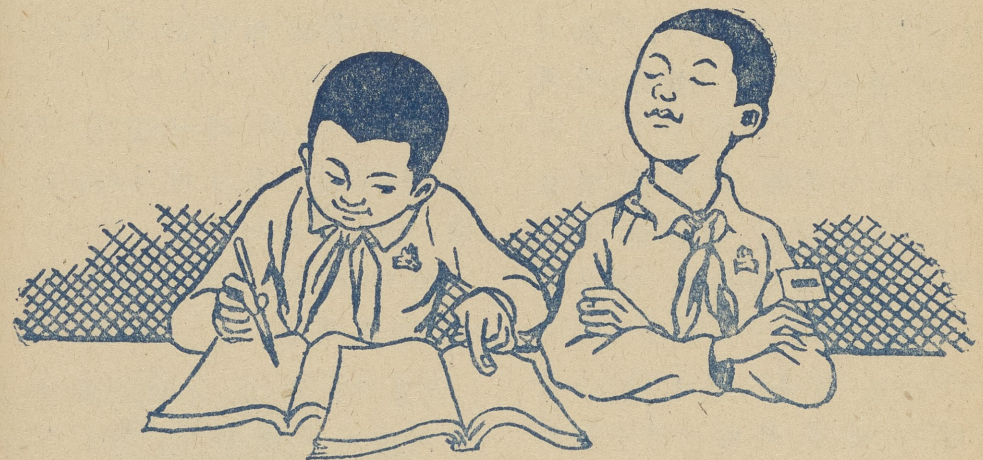
그리하여 수천이의 성적은 점점 낮아져만 가며 일선이와 용운이와의 사이는 날마다 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분단에서는 이 동무들의 잘못을 고쳐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동무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길주 쌍룡 인민 학교 대 제4 분단
위원장 **김 철규** 올림

*　　*　　*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 동무들에게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요.

동무들은 일선이와 수천이의 친한 사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진정한 동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여야 할가요?

그리고 용운이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단은 그들에게 어떤 방조를 주어야 할가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편집부에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황해 남도 배천군 배천 인민 학교
제5 학년
최 경 희

례성강을 끼고 널다랗게 펼쳐진 연백벌은 나를 낳은 고향입니다.

공화국의 품 속에 들어 오기 전의 연백벌은 아주 살기 어려운 곳이였지요.

가을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과 지주놈들에게 낟알을 모주리 빼앗기고 농민들은 굶주려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철부지였으나 가을이 되면 개성에 사는 지주놈이 와서는 곡간을 뒤지고 낟알을 모주리 빼앗아 가던 일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합니다.

아홉살 나던 해 봄이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부자'집 딸인 춘자라는 애는 학교에 입학했다고 새옷을 입고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춘자가 몹시 부러웠지요.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 나도 학교에 보내줘요》 하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애타는 얼굴을 지으시며

《무슨 놈의 세상인지 자식마저 학교에 못보내니》하고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아버지는

《얘야, 걱정 말아. 머지 않아 우리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게다》하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이였어요.

학교에 갔던 오빠가 울면서 되돌아 왔습니다.

《오빠 누구하고 싸웠어?》하고 물어 보았으나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였습니다.

그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의 뺨에는 매맞은 자리가 울긋불긋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날 오빠는 수업료를 못내서 공부도 못한채 매를 맞고 그냥 쫓겨난 것입니다. 《경희야, 우린 참 불상하구나. 학교도 마음대루 못다니고…》. 오빠는 안타까이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해 가을부터 아버지는 자꾸 어디론지 나가셔서는 며칠씩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어데로 자꾸 가실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도 그저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그런건 아무에게도 물어서는 안된다고 굳이 타일러 줄

뿐이였습니다.

어느날 우리 집에는 세놈의 리 승만 괴뢰 경관놈이 문짝을 차고 달려 들었습니다.

총을 내대며 경관놈들은 승냥이처럼 눈알을 번쩍이였습니다.

《이 빨갱이 년아. 어데 갔어?》하고 어머니를 위협하며 아버지 간 곳을 대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 대신에 입을 악 물고 놈들을 노려볼뿐이였습니다.

놈들은 우리 집 식구를 내쫓고 집을 불 사르고 소와 돼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날 어린 나의 가슴도 더욱 불탔습니다.

《죽일 놈들》. 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하였습니다.

《저놈들이 언제면 망할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정든 마을을 떠나 이웃으로 쫓겨 났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쪽땅에서는 어디로 가나 행복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 *

용감한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 의하여 우리 마을은 원쑤놈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였습니다.

따발총을 멘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반가웠습니다. 인민 군대 아저씨는

《얼마나 고생했니?》하고 널직한 가슴에 나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산에서 싸우시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원쑤놈들이 쫓겨간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행복한 새 살림이 시작되였지요.

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는

《인젠 너를 학교에 보내 주마 내 말이 틀림 없었지》하시며 나를 학교에 보내 주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다니고 싶던 학교에 나간 첫날 아침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나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였습니다.

선생님은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들고 교실에 들어 오셨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아버지께서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한번도 원수님을 본 일은 없었지요. 선생님은 《원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하고 말씀하였을 때, 나와 그리고 나의 동무들은 모두 다 《만세!》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쁘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날마다 행복이 꽃피여 갔습니다.

나는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서 행복하게 배우면서 영예로운 소년단원이 되였고 벌써 5학년생이 되였습니다.

어제'밤에 나는 협동 조합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면 김 일성 원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가요?》하고 물었지요.

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시며《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일'군이 되면 뵐 수 있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워,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날 것을 가슴 속에 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지였습니다.

아침 일찌기 일어나

봄을 맞으면서 우리들은 아침 체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찌기 신선한 공기를 힘껏 마시며 우리들은 넓은 마당으로 달려 갑니다.

반 동무들이 모두 모이면 반장 동무의 구령에 맞춰 소년단 체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 반 동무들은 몸을 더욱 튼튼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강서군 기양 인민 학교 대
박 정 수

작 문

만경대 인민 학교
5학년 2반 서 수 자

김 일성 원수님이 탄생하신 만경대로 지방 학교의 견학단들이 자주 찾아 온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견학단들과 뜻깊게 한 자리에 모여 우등'불 모임을 조직하였지요.

이런 우등'불 모임에는 언제나 김 일성 원수님의 할아버지를 모신답니다.

우리들은 이 뜻깊은 우등'불 모임을 가지기 위하여 저녁에 줄지어 소년단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견학단 동무들과 함께 만경대 산우로 올라 간답니다.

어린 나무들을 위하여

따뜻한 봄 바람이 불어옵니다.

민주 수도 평양의 거리 거리에 지난해 심어 놓은 어린 나무들은 벌써 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매일 정성 들여 가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오자 우리는 쓰딸린 거리의 량쪽 록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올해에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에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평양 제4 고급 중학교 인민반 좌 복희

나는 소년단원이 되였어요

평양 제4 중 인민반 2 학년
류 종 수

오늘 나는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지금 나의 왼쪽 가슴에는 어제까지도 없던 소년단 휘장이 달렸고 목에는 붉은 넥타이가 봄바람에 휘날립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어느새 집으로 돌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앞에서 오늘은 소년단 경례를 하였더니 《종수도 인젠 훌륭한 아이가 되였구나》 하고 반가워 하시겠지요.

나는 곧 책상에 마주 앉아 오늘 배운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찾아 왔지요.

《애들아! 난 오늘부터 소년단원이야, 복습을 다 하고 나갈테야》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소년단원이 된 기쁨으로 더욱 공부를 잘 하며 웃어른들을 존경하며 동무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로력을 사랑할 줄 아는 규률 있고 훌륭한 소년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문

우등불모임

서산에 해가 지고 어둠이 스며들면 우등'불은 피여 오르지요.

우리들은 모두 일어서서《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지요.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을 둘러 싸고 앉은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지요.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리들을 정직하고 용감하고 참을성 있는 훌륭한 어린이로 되게 하여 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곧 유쾌한 오락 시간이 시작됩니다.

견학단원들이 춤을 추면 우리도 시를 읊으며 춤을 추어 보이지요.

이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가운데 우등'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이 빨찌산에서 싸우실 때, 백두산 밀림 속에서 피우시던 우등'불을 생각하지요.

우등'불을 피우고 김 일성 원수님은 빨찌산 대원들과 함께 싸움에 대한 의논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였지요.

김 일성 원수님이 빨찌산에서 피우시던 밀림 속의 우등'불!

우등'불이 피여 오르는 앞에서, 우리들은 어서 배우고 자라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될 것을 결심하지요.

이렇게 해마다 꽃피는 봄에 찾아 오는 견학단원들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등'불 모임》은 만경대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들의 자랑이며 영예로운 일이랍니다.

우등불모임

어떤 사람으로 될가?

브·마야꼽쓰끼

나는 해마다 자라—
열 일곱이 되여 간다.
그때면 어디서 무슨일을 할가?

목공들은
없어 안될 일'군들!

가구를 멋지게 만들테다.
처음
우리는
통나무를 가지고
널을 켠다,
길고도 널찍하게.

이 널이
작업대에 오르면

톱은 불이 날듯
짤라 낸다.

손에 대패를 쥐면
일은 달라—
옹지건 거스러미건
말쑥히 민다.
좀 좋은 대패밥인가
누런 작난'감이로구나!

그리고 만약
둥근 것이 소용되면
선반에 걸어
둥굴게 깎아내고
뺄함도 다리도
하나, 하나,

이렇게 의자와 책상들은
만들어 졌다!

목공도 좋지만
기사는— 더욱 좋지.

난 집을 지었으면—
나를 배워 주면 되지.

먼저
설계를 한다.
마음 드는
그런 집을.

가장 중요한건,
진짜 집 같은 멋 있는 걸
설계하는 것.
이것은 앞이니까—
말하자면 집 전면이지.

이것은
하나 하나 나누어져—
이것은— 목욕탕
이것은— 정원

설계가 서면
일'손은 백도 천도 든다.
발을 세운다,
하늘 높이.
일이 어려운데선
기중기 우루룽
발판들은 층 층
가마에서 구워진
벽돌도 올라간다.

지붕을 씌우면—
집은 일어선다.
훌륭한 집
어디로 보나
굉장한 집.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서 살리라,
편리하게 넓게.

기사도 좋지만
의사는—더욱 좋지.

난 아이들을 치료했으면—
나를 배워 주면 되지.

난 아이들의 병을 고치련다—
이것은 좀 좋은 일인가?

난 삐짜에게도 가고

난 볼랴에게도 가련다.
《잘 있느냐 아이들아!
누가 앓아요?
어떻게 지내요?
배는 어때요?》.

안경 넘어로
　혀끝을 본다.
《체온계를 겨드랑에 끼워,
　귀여운 녀석!》
그러면 어린이는 기뻐서
체온계를 끼운다.

《가루약을 꿀꺽 삼키고
물'약을 작은 술로
조금씩 마시면·
아주 나을거요.

넌 자리에 누웠으면…
넌 배에 찜질을 해야지,

그럼 틀림 없지
잘 자랄걸》.

의사도 좋지만
로동자는— 더욱 좋지.

난 로동자가 되였으면—
나를 배워 주면 되지.

어서 가자!
　고동이 울린다.
이리하여 공장으로 간다.

사람들은 많기도 하구나.
백 또는 이백 한 중대처럼
혼자선 아무 일도 못하지—
다 같이 일해야지.

무쇠도 절삭기로
짜를 수 있고,

무거운 것은
억센 기중기로,
증기 함마는
레일도 납작하게,
백철을 녹이여
기계를 다룬다.
이 일은
손발이 잘 맞아야지,

난 라사못을 만들고
넌 낫또를 만들고
이것들은
곧 조립 제호로.
보르트들은
제 구멍으로 들어가라.
큰 부속품들을
　서로 맞추어라.

저기는
　연기.
여기는
　요란한 소리.
온 공장을 뒤 흔든다.
마침 기관차는 온다.

동무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르고
또 나르려고.

(다음 호에 계속)

다 하 이 작 (중국)

봄날 개울물 우에 드리운 버들가지는 물 속에서도 잘 보였지요. 버들가지는 파릇파릇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치 기장이 좀 넘을만치 큰 꼬마 붕어 한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엄마 붕어의 뒤에 바싹 붙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꼬마 붕어는 퍽 예뻤지요. 큰 언니 붕어도 그를 사랑했고 작은 언니 붕어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엄마 붕어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를 데리고 깊은 물속에 가 놀며 꼬마 붕어에게도 여러 차례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꼬마 붕어는 별 말을 다 해도 놀러 가지 않았지요.

바람이 강물을 스쳐 불자 강물에는 물결이 여울쳐 나갑니다. 꼬마 붕어는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요. 그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가 물결을 타고 뛰노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도 합니다.

엄마 붕어는 그들을 데리고 홈패인 조그만 바위굴 앞까지 헤엄쳐 갔지요. 큰 언니 붕어가 굴 속으로 헤엄쳐 들어 갔습니다. 작은 언니 붕어도 굴 속으로 헤엄쳐 들어 갔고 꼬마 붕어도 들어 갔지요.

굴 어구가 너무 좁아서 뚱뚱한 엄마는 비비고 들어 갈래도 못 들어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엄마 붕어는 굴 앞에서 《아이들아 나오너라》 하고 불렀습니다. 《굴 속엔 바람도 안불고 잔잔한데 나가긴 뭘?》.

꼬마 붕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언니 붕어는

《바람과 물결이 그렇게 두려우냐》

하고 말하면서 꼬리를 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붕어는 또 불렀습니다.

《꼬마야 작은 언니 하고 함께 나와!》.

꼬마 붕어는 대답도 안하고 작은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먹을 것도 많지 않아. 일을 안해도 돼. 나가긴 뭘나가》

《넌 먹는 걸 얻기 위해 힘들이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언니 붕어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붕어는 퍽 걱정되였습니다.

《꼬마야 엄마 말 들어, 빨리 나와. 인제 너도 크면 나오지 못한다》.

《굴 아가리만큼 크기 전에 나가요》.

꼬마 붕어는 그래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엔 바람도 물결도 없다》.

큰 언니가 또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지 않아도 래일 또 불지》.

꼬마 붕어는 엄마 붕어가 눈물을 흘리며 큰 언니와 작은 언니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지않으려고 몸을 돌렸지요.

다음날 엄마 붕어는 또다시 그를 찾아 왔지요.

《엄마, 며칠만 더 있다 나갈래요》하고 꼬마 붕어는 또 대답했습니다.

엄마 붕어는 날마다 찾아 왔으나 《며칠만 더》 하고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달 두달이 지났습니다.

…꼬마 붕어는 때로 굴 밖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엄마와 언니들도 생각했지요.

그러나 밖을 생각할 때 무섭기만 했지요. 굴 속엔 바람도 없

고 무서운 검은 고기들도 들어 오지 않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가끔 한 두마리의 꼬마 고기들이 굴 속으로 놀러 왔다가는 《우리 함께 나가자. 바깥은 참 굉장하지. 재로운 놀음도 많고 맛있는것도 많다. 여기서 언제까지 멍하고 있겠니, 참 비좁아 옴짝도 못하겠구나!》 하고 말했지요.

《괜찮어 잘 가라! 너 아니면 또 딴 동무들이 와서 놀아 주겠지》

꼬마 붕어는 기어코 나가길 싫어했습니다.

날이 가고 어느새 늦가을이 되였습니다. 버드나무 잎이 강물 우에 떨어지고 꼬마 붕어도 벌써 다섯치 기장이나 되게 자랐지요. 그런데 개울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인제 다 먹어 없어졌습니다. 그는 먹을것이 또 나타나지나 않을가 하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파서 그는 어지럽고 눈이 돌아 정말 견딜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제서야 굴 밖으로 나가려 하였지요.

굴 아가리는 크기가 전과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량쪽 비늘을 벗기우고 그만 되돌아 섰습니다.

그는 울면서 고함 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러자 엄마 붕어가 왔습니다. 언니 붕어들도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붕어는 눈물이 글성해서 《얘야 풍랑(모진 바람과 파도)을 두려워하고 먹을 걸 찾아 다니길 싫어하더니…글쎄 인제 난들 수가 있겠니?》

하고 말했습니다.

꼬마 붕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눈은 굴 속의 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영 기 역)

종자와 발아

김 일성 종합 대학
생물학부 김 찬 희

나는 얼마 전에 이웃에 사는 소년단원 동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꽃밭에 꽃씨를 뿌렸는데 싹이 일제히 나오지 않아요. 같은 꽃씨를 같은 곳에 같은 날 심었는데요》.

아마 그 학생은 꽃밭에 여러가지 꽃씨를 심고 그 꽃씨들이 언제 싹이 나오며 어떻게 자라나 꽃피며 열매를 맺는가를 자세히 살피려는 어린 과학자인 것 같았습니다.

동무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어떤 실험을 하면 될가요?

강남콩(다른 콩도 좋다) 몇알만 가지면 간단히 실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남콩을 물에 뿔쿠십시요.

그러면 종자의 겉에는 빤빤하고 굳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콩 쪼각(자엽)이 있고 그 속에 어린 싹이 있는 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자엽
어린 싹
강남콩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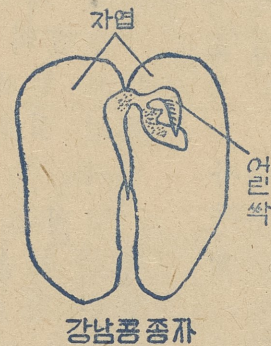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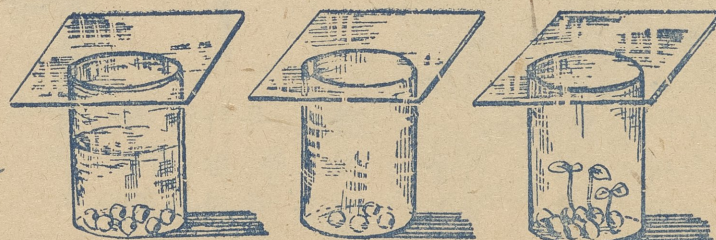
이 어린 싹은 장차 자라나게 됩니다.

이 어린 싹이 처음 자라날 때에는 콩 쪼각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쪼각이 상하지 않고 잘 여믄 것일수록 싹은 더 잘 자랍니다. 다음으로 종자가 발아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험해 봅시다.

세개의 컵을 마련하십시요.

매 컵에다 같은 종자 열알씩 넣으십시요.

그다음 첫째 컵에는 종자가 물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넣고, 둘째 컵에는 물을 넣지 않고, 세째컵에는 종자

가 조금 잠길 정도로 물을 붓으십시요.

그리고 이 세개의 컾을 다 같이 따뜻한 방 안에 일주일쯤 두었다가 세개의 컾 안에 들어 있는 종자를 살펴 봅시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째 컾에 들어 있는 종자는 발아하였을 것이고 둘째 컾에 들어 있는 종자는 일주일 전과 마찬가질 것이고 첫째 컾에 들어 있는 종자도 뿔어났을 뿐 발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첫째 컾에 있는 종자는 물과 온도는 받았으나 종자가 물에 잠겨 있어서 공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컾에 있는 종자는 공기와 온도는 받았으나 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째 컾에 들어 있는 종자는 물을 조금 밖에 붓지 않았으므로 공기도 그리고 물도 온도도 적당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발아하자면 온도, 공기, 물—이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심는 땅에는 공기, 온도, 물—이 세가지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 다음 땅을 갈아 엎는 것은 땅을 부드럽게 하여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눈 녹은 물이 잘 찾아 들어서 봄에 종자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에서 본 것처럼 종자가 발아하는데는 온도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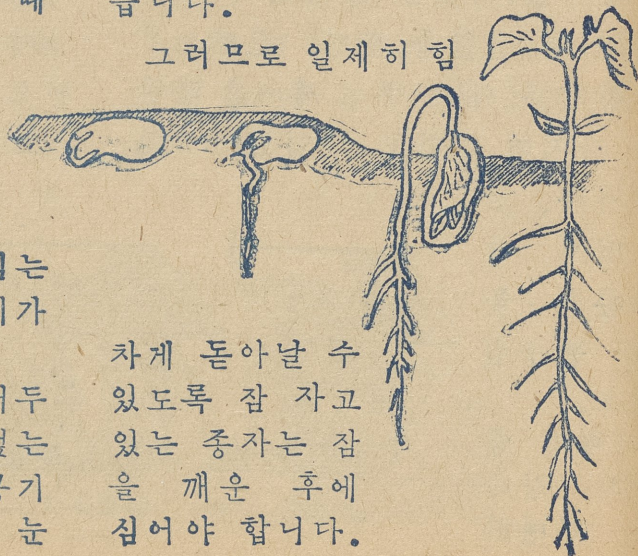
그런데 종자에 따라서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낮은 온도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므로 일찌기 심고 옥수수, 콩 같은 종자는 더운 온도를 요구하므로 늦어 심습니다

그런데 상하지 않은 종자를 심어도 일제히 돋아 나오지 않고 어떤 것은 좀 늦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자가 살아 있기는 하여도 겨울 동안 잠자고 있다가 잠을 채 깨지 못한채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온도가 낮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창고나 독같은데 습한 종자를 두었다가 그대로 심었을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히 힘

차게 돋아날 수 있도록 잠 자고 있는 종자는 잠을 깨운 후에 심어야 합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심기 전에 종자를 해'볕에 쪼이고 공기를 잘 쏘이게 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종자가 발아하는 모양을 여러가지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종자는 해'빛이 잘 쪼이는데서만 돋아 나고 말독풀씨는 그늘진 곳에서 잘 돋아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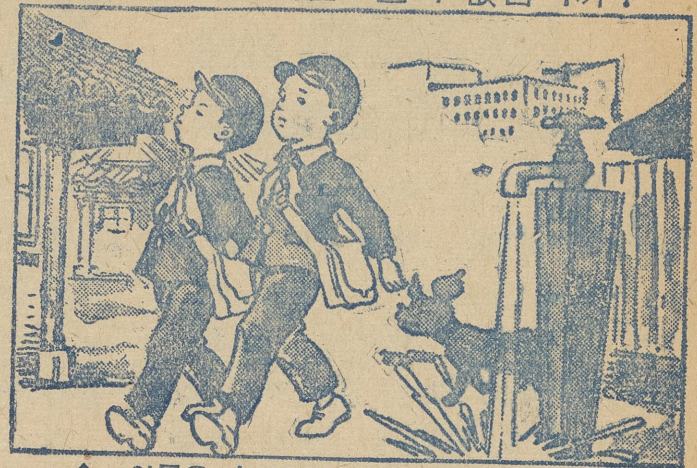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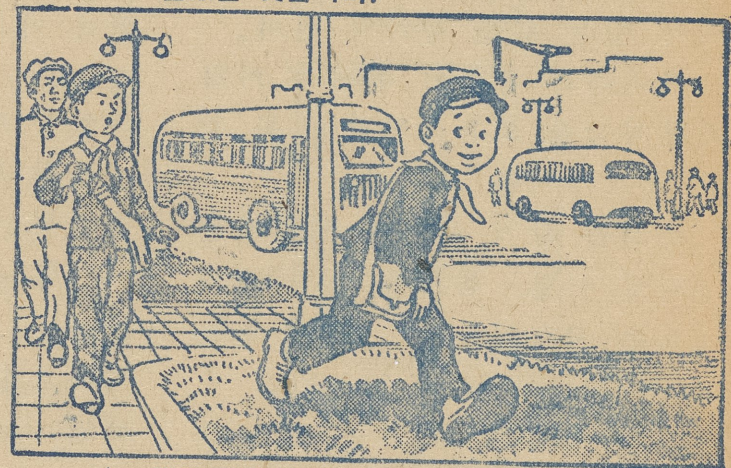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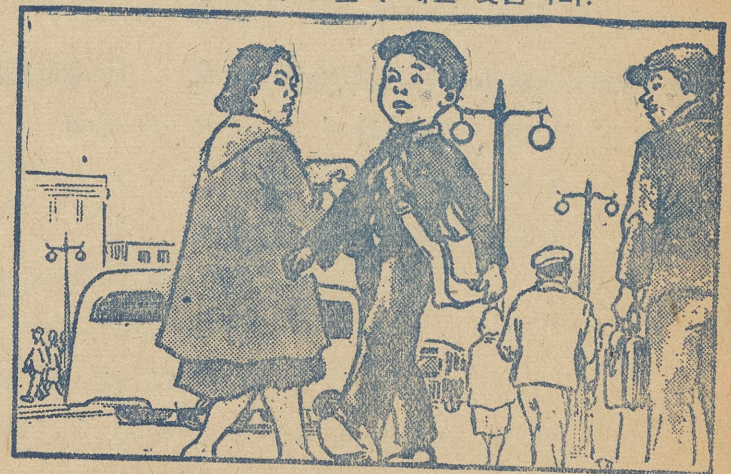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종자는 어떤 순서로 발아하는가 잘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껍대기를 터치고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얼마쯤 자란 다음에야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며 다음에는 잎이 핍니다

왜 뿌리가 먼저 나올가요? 그것은 뿌리가 먼저 자라서 흙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빨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실험은 컾에서도 할 수 있지만 땅에 종자를 심은 후 자주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 화▷

동무들에겐 이런 일이 없습니까?

◇ 이들은 수도물이 흘러 넘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 잔디풀이 만일 말을 한다면 <소년단원 동무>하고 불러 세울 것입니다.

◇ 교통 정리원이 없는 곳에선…….

비밀 과업

이 유희는 8—10명씩 두 패로 나누어서 한다. 먼저 패마다 각각 번호를 부르고 두 패로 나누어서 운동장의 한편에 정돈해 선다. 그리고 각각 자기패의 앞에 몽둥이를 다섯개 꽂아 놓는다. (그림을 보라) 그리고 몽둥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선다.

자기패의 몽둥이 뒤에는 미리 세발자국쯤 되는 거리에 똑 같은 동그라미를 그린다.

유희를 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비밀 과업》 쪽지를 8—10개씩 (노는 사람의 수에 따라) 만들고 쪽지에 글을 써 넣는다.

그 다음에는 쪽지를 접고 그 겉에 1에서 10까지의 번호를 적는다. 매 번호마다에 쓴 내용은 두 패가 다 같게 하여야 한다.

유희를 시작하기 전에 종이 쪽지들을 동그람이 안에 놓고 그 우에 돌이나 벽돌을 지질러 놓는다.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자기 패에서 1번이 《비밀》 있는데로 뛰여 가서 자기 번호를 찾아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지적된대로 과업을 수행한다.

유희 지도자는 한 복판에서서 유희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

만일 과업을 옳게 하였을 때에는 지도자는 큰 소리로 《제 자리에로!》한다. 그러면 과업을 해낸 사람은 자기 대렬로 뛰여 가서 둘째번사람과 손을 부딪치고 자기 자리에 가 선다. 둘째번 사람은 《비밀》있는데 뛰여 와서 자기 쪽지를 찾아 그 과업 대로 한다.

만일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하고 웨치면 과업을 잘 해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다시 한번 해야 하며 그것을 옳게 한 후에라야만 자기 대렬로 돌아갈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자기 과업을 끝낸 패가 이긴다.

《비밀 과업》이라는 것은 례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첫째 몽둥이를 세째 또는 다섯째 자리에 바꾸어꽂을 것.

몽둥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비밀》있는 데로 갈 것.

몽둥이로 5각별을 만들 것.

몽둥이를 한줄로 각각 손바닥 만한 거리로 눕혀 놓을 것.

몽둥이를 모두 뒤집어 꽂을 것.

지도자 한테 뛰여가서 돌을 다섯개 받아다가 몽둥이 우에 하나씩 올려 놓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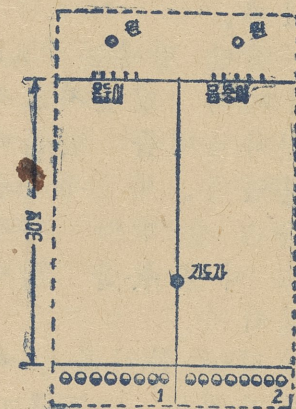
왼발로 몽둥이 주위를 한바퀴 돌고 《비밀》있는데로 갈 것.

몽둥이를 전부 묶어서 줄 우에 놓을 것.

이 밖에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

속 담

무른 감도 쉬여 가면서 먹어라.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우물 들고 마시겠다.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첫 술에 배 부를까?
(이상 속담들은 무슨 일에서나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조급해 말고 덤벼치지 말라는 뜻이다).

속 담

굴르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공 든 탑이 문허지랴?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찧는 방아도 손이 나들어야 한다.
(이상 속담들은 무슨 일에서나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성공한다는 뜻이다).

◁공 작▷

배 만들기

(1) 짐'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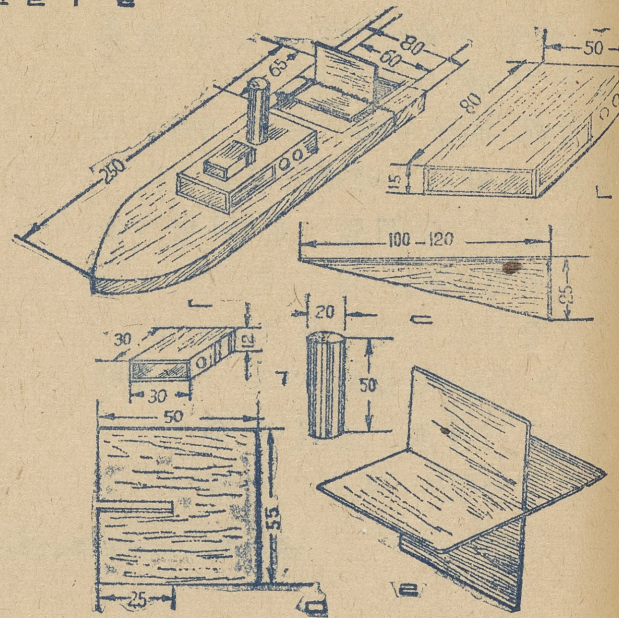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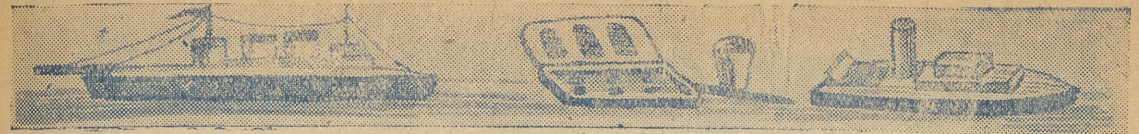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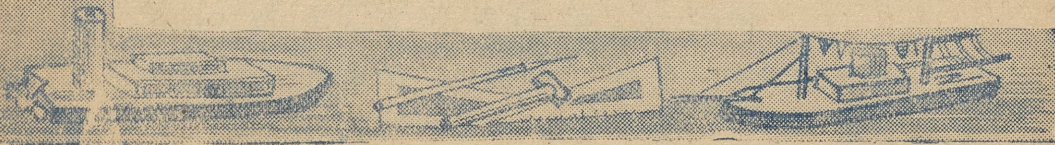
배의 갑판은 두꺼운 널판자로 그림과 같이 베여 만들고 그 우에 나무 조박으로 연통과 웃 몸둥이를 만들어 붙인다.

갑판 밑에는 8mm 두께의 널판자로서 밑바닥대를 만들어 붙인다. 이 부분품들은 잘 닦아 가지고 작은 못을 박아 붙인다.

그리고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그림《ㅁ》와같이 베여서 만드는데 이것은 두께가 약 3mm쯤 되는 가벼운 널판자를 조심히 베여서 만들어야 한다.

미리 배 꼬리에는 수레바퀴를 댈 자리를 오려내고 거기에 굵기 2×2mm의 고무줄을 몇개 겹쳐서 그림과 같이 비끌어 맨다.

이 배를 띄울 때에는 수레바퀴를 손으로 돌려 고무줄이 빵빵해지도록 감아서 배를 물 우에 띄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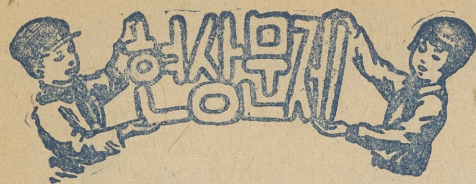
그림—짐'배와 그의 부분품들 (ㄱ) 연통, (ㄴ) 웃몸둥이 (ㄷ) 밑바닥대, (ㄹ) 수레바퀴, (ㅁ) 바퀴의 세부

39폐지의 그림—기선과 그의 부분품들
(ㄱ) 기선의 모형.
(ㄴ) 웃몸둥이
(ㄷ) 고무 줄을 단 것,
(ㄹ) 베아링그,
(ㅁ) 프로페라를 베여내는 도면,

(2) 기 선

이 배도 짐'배의 부분품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과 같이 만든다. 그런데 이 배에는 수레바퀴 대신에 프로페라를 만들어 붙인다.

프로페라와 베아링그는 함석조박을 오려서 각각 그림《ㄹ》,《ㅁ》와 같이 만든다. 프로페라에는 쇠줄로 만든 종'대를 납땜을 하여 붙이고 프로페라의 날개들은 각각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휘여놓는다. 베아링그는 배꼬리에 못을 박아 붙이고 그 다음 거기에 프로페라의 종'대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프로페라와 베아링그 사이에 유리 구슬이나 쇠고리를 끼워야 한다. 종'대 끝은 낚시 모양으로 까부리고 거기에 질린 고무줄을 몇 오래기 겹쳐서 비끌어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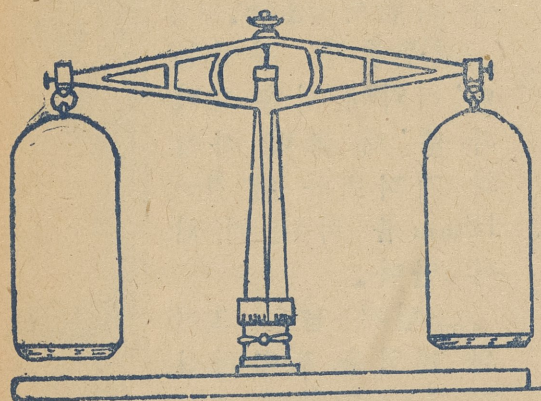
고무줄의 길이는 배'머리에 박은 고리와 종'대 고리 사이의 거리보다 약 8—10mm쯤 더 길게 해야 한다.

그림과 같은 크기의 기선을 만들려면 2×2mm굵기의 고무줄을 대여섯 겹 합쳐서 매야 한다.

이 기선을 물에 띄울 때에는 프로페라를 손으로 돌려 고무줄이 빵빵해지도록 감아가지고 잔잔한 물 우에 띄우면 된다.

어떻게 달았을가?

모양과 색과 크기가 꼭 같은 유리로 만든 구슬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개가 다른 구슬 26개보다 조금 무겁고 그외의 것들은 모두 무게가 같습니다.

천평 (그림과 같은 저울)을 리

용하여 그중 무거운 구슬을 찾아 내여야 하는데 세번 밖에는 더 저울에 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구슬을 찾아 낼가요?

(중국 제남 철도 학교
조선 류학생 김 경복)

2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첫째 문제의 답

고 래

둘째 문제의 답

개 구 리

당 선 자

함북도 부령군 제1 인민 학교 방 춘희
함북도 라진군 제2 인민 학교 김 세일
강원도 김화군 수태리 인민학교 심 홍춘
평북도 박천 제3중학교 인민반 신 봉순
평북도 신의주 제5 인민 학교 황 영남
평남도 은산군 장림 인민 학교 김 영자
평양시 제1 녀고중 인민반 변 광섭
평양시 제4 인민 학교 길 용섭
함남도 신창군 신창 인민 학교 한 순윤
함남도 신포군 제2 인민 학교 오 윤건
황남도 신천군 신천 인민 학교 리 성모
황남도 삼천군 삼천 인민 학교 황 영남
자강도 만포군 제2 인민 학교 김 창식
황북도 평산 제2중학교 인민반 백 신자
황북도 봉산군 미곡 인민 학교 김 현상
판문군 판문 인민 학교 리 용택
자강도 만포 제1중 학교 인민반 윤 경호
강원도 원산 제2사전 부속 인민 학교 양 재성
평남도 강서군 강서 인민 학교 리 수정
량강도 운흥군 운총 인민 학교 김 영숙

편집 위원——김 주현 (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5년 4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5년 4월 20일 발행 《소년단》 1955년 제4호 (총67호)
발행소 민주 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048 값 40 원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어린 동무들!

어린 동무들!

아침 체조를 하시요.

아침 체조는 신경과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체조를 하면 힘도 세지고 몸도 튼튼해 집니다.

체조는 맑은 공기가 흐르는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체조가 끝나면 젖은 손 수건으로 팔과 가슴 그리고 몸을 잘 문지르고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씻으시요.

이렇게 단련된 동무들은 몸에 물을 껴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28—30도의 물로 감고 점차로 찬물로 감도록 하시요.

어린 동무들!

아침 체조와 같이 낮에도 체조를 하시요.

자기의 몸을 단련하시요.

체조는 규률 있게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